

◆ 政府 施策 ◆

공통어로 技術開發 36課題 확정

— 商工部,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5개과제에도 4.4억지원 —

상공자원부는 제3차 공업기반기술 개발 전문위원회를 갖고 VTR용 헤드드럼의 다이캐스팅 소재기술 등 공통어로기술 개발을 위한 36개 신규과제를 확정하고 이들 과제에 대해 39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키로 했다.

상공부는 또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진공펌프용 자성유체시일등 5개 과제를 선정, 4억 4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기술개발투자능력이 중소기업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내열합금 Spinneret휠 제조기술 등 15개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공업기반 기술사업대상에서 제외하되 산업은행의 생산기반기술개발자금 또는 공업발전기금 등 정책금융자금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했다.

이밖에 상공부 공업국에서 재심의를 요청한 7개과제와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정밀검토가 필요한 2개 과제는 분과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와 관련기관간 정밀검토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이번에 신규과제로 선정된 공통어로기술은 섬유·화학이 10건, 전기·전자 9건, 기계·자동차 7건, 정보·통신 6건, 금속·재료 4건 등이며 주관기관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20건, 정부출연연구소 8건, 산업기술연구조합 5건, 대학 2건, 기타 1건 등이다.

공통어로기술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과제 39억원과 함께 민간에서 부담하는 48억원등 총 87억원의 개발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 공업기반 技術開發사업 2次 신규과제 —

(중전기 분야 지원대상 과제)

〈공통에로기술개발〉

- 고속엘리베이터 구동용 전류형 IGBT인버터 /현대중공업(주) 중전기 기술연구소

〈정책금융 추천 대상과제〉

- 24KV급 SF₆ 가스개폐기용 3위치 로타리 스위치 개발 /금성산전 부문 청주연구소
- 고효율 진공청소기용 모터 개발 /금성사 생활시스템 연구소

工發金 내년 2615억 지원

— 商工部, 내년도 공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발표 —

상공자원부는 내년도 공업발전기금 융자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4.2% 늘어난 2615억으로 확정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지원키로 했다.

상공자원부가 발표한 '95년도 공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기계류,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와 신기술 및 제품디자인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제품개발사업에 올해 950억원보다 26.03% 증가한 1200억원을 책정했다.

또 2천년대 선도산업이며 신경제 산업발전 전략부문의 핵심과제인 정밀전자, 전자기계, 신소재, 항공 등 첨단산업기술개발 사업에 올해보다 9% 늘어난 545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발 및 직물의 합리화기간이 각각 내년 2월말과 5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 대한 합리화지원자금을 폐지하고 대신 신발 및 직물산업의 시설 개체 및 설비자동화를 통한 생산성향상 자금으로 450억원, 염색·도금·피혁 등 산업공해 유발업체의 시설개체자금으로 200억원, 패션업계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자금으로 50억원을 배정했다.

상공부는 올해 신발합리화 자금으로 600억원, 직물 70억원을 각각 배정했으나 신발의 경우 합리화 자금 이용실적이 60억원에 그쳐 올해는 지원규모를 축소했으며 WTO 협정상의 산업지원체제에 맞게 기존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을 생산성향상과 같은 기능별 지원체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공부는 이밖에도 환경공해 산업인 부산·대구·시화지역의 염색가공협동화단지에 대해서도 입주 기업의 원가절감 및 산업환경개선을 지원키 위해 공동폐수처리 시설 확충자금으로 170억원의 공발기금을 배정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발기금 운용계획을 산업정책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공발기금의 융자조건은 기술개발자금의 경우 연리 6.5%의 5년(거치기간 2년포함)이내 상환조건이며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와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자금은 연리 7%의 8년(거치기간 3년포함)이내 상환조건이다.

■ '95년도 공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운용규모	'94계획	'95계획	증 감
지 출	1. 시제품개발	95,000	120,000	25,000
	2. 첨단산업기술 개발	50,000	54,500	4,500
	3.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	70,000	70,000
	○생산성 향상	-	45,000	45,000
	○산업공해시설 개체	-	20,000	20,000
	○고부가가치화	-	5,000	5,000
	4. 합리화사업	91,000	-	△ 91,000
	○신발	60,000	-	△ 60,000
	○편직, 봉제, 염색	22,000	-	△ 22,000
	○직물	7,000	-	△ 7,000
○패션디자인	2,000	-	△ 2,000	
5. 염색공단폐수처리 시설 확충	15,000	17,000	2,000	
	계	251,000	261,500	10,500

中企자동화사업자금 4527억 支援 - 상공부, 1차지원대상 선정...업체당 평균 4억 -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키 위해 중소기업자동화사업 자금지원 대상업체로 우선 1111개사를 선정, 총 4527억원의 자금지원을 추천했다. 또 오는 10월중 400여개사를 추가로 선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총 1500여개사에 7천억원 상당의 자금지원을 추천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자동화사업 신청 마감일인 9월 16일까지 총 2408개업체에서 1조749억원의 지원신청이 접수돼 업체당 평균 4억4천만원의 신청이 이뤄졌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난 9월 3일 이전에 신청된 1253개 업체를 대상으로 9월7일부터 17일까지 1,2차 선정위원회를 개최,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을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상공부는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업체에 대해서는 10월 15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선정위원회를 갖고 400여개 업체를 추가 선정, 전체적으로 1500여개 업체에 7천억원 상당을 추천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추천업체가 마무리되면 작년도 구조개선사업의 실효율에 비추어 약 5천억원 정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추천된 업체는 담보를 확보, 금융기관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로 부터 일부일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공부 관계자는 담보의 경우 정책자금 이라 할지라도 현재 신용보증에 의한 담보가 30%를 넘지 않고 있으나 이번 중소기업자동화사업 자금을 대해서는 대출자금의 50% 이상을 신용보증에 의해 지원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소기업자동화사업은 작년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이 성과가 컸고 기업들의 호응도 높았던 데 따라 지난 7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조 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 제2차 구조개선사업으로 재추진된 것이다.

상공부는 자동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고임금과 인력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절감과 생산성향상은 물론 생산기반기술에 대한 자동화확대로 산업별 기술격차가 축소돼 전반적인 제조기술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추천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기계가 330개 업체(1285억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공이 225개 업체(981억원), 금속 198개(883억원), 섬유 103개(443억원), 전자 100개(442억원), 전기 57개(135억원), 기타업종은 98개(358억원) 등이다.

‘품질경영 100選’ 선정

－ 工振廳, 大企業 61개 · 中小기업 28개등 최우수기업 발표 －

공진청은 활발한 품질경영 활동을 통해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최우수기업 89개업체를 ‘품질경영 100선’으로 선정 발표했다.

공진청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대기업 61개업체, 중소기업 28개업체로 품질경영을 통해 높은 생산성·수익성및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기술개발및 품질개선활동과 인재육성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품질경영 100선은 공진청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제도인데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자동차·전자·철강·화학등 22개 업종별로 나누어 신청및 추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품질경영 체제와 성과에 대한 서류및 공장현지 확인심사를 거쳐 경제5단체·소비자단체등 각계대표 14명으로 구성되는 ‘품질경영 100선’ 선정위원회가 최종 선발했다.

‘품질경영 100선’으로 지정된 기업은 한국품질대상과 품질경영상의 수상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앞으로 2년간 KS허가등 공장검사와 시판품조사의 면제등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에 품질경영 100선으로 지정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회원업체>

- 계양전기(주) • 쌍용중공업(주) • 금성산전(주)
- 풍성전기(주) • 동미전기공업(주) • 삼성항공산업(주)

중소기업 技術지도 추진키로

－ 工振廳, 團體엔 강사支援...84業體에 기술지도 실시 －

공진청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기술지도 기반조성을 위해 생산자단체·조합및 민간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진청은 이를위해 하반기중 자동차공업협동조합등 20개 생산자단체·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술정보 교류 세미나의 활성화를 위해 강사지원, 정보자료·교제·장소제공등 각종 지원을 하는 한편 84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체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외국규격획득 지원을 위해 전기전자시험연구원등 6개 민간시험연구원의 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험연구원의 각 지방지소를 지방기술 지도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며 기술정보 수집및 보급사업추진도 모든 관련전문분야 업체에 확대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하반기에 열리는 각종 기술세미나는 레미콘 품질경영세미나, 시멘트가공업최고경영자및 임원세미나, 자동차부품공업계 최고경영자 세미나, NC공작기계기술세미나, 주물공업 중간관리자 세미나, 열처리기술 세미나, 화섬기술세미나, 유리심포지움, 독일 그라스텍, 도자기 심포지움, 전기식 지시저울 기술세미나등 24건이며 2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용품 安全管理法 시행규칙 개정 - 1종전기용품 258개 품목, 2종전기용품 8개품목으로 조정 -

전기문결이등 14개 전기용품이 신고만으로 제조가 가능하며 초단파치료기등 9개품목은 형식승인 대상으로 삭제됐다.

공진청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품질향상으로 안전성이 높아진 전기문결이·전기조끼·8mm영사기·등사기·전기칫솔·야채세정기·전기살수기·전기우유포트·파마넨트기·전기빗·전기인두가열기등 41개품목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1종전기용품에서 신고만으로 제조가능한 2종전기용품으로 전환했다.

이와함께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초단파치료기·가정용온열치료기·가정용저주파치료기·가정용온열치료기·가정용초음파치료기등 9개품목은 1종전기용품에서 삭제했다.

전기정미기·전기주름펴기등 안전성확보가 요구되는 2개품목은 1종 전기용품으로, 전자식 금전등록기는 2종전기용품으로 신규지정했다.

이밖에 사용이 대량화되는 초음파세정기는 정격고주파출력 50W이하에서 200W이하로 형식승인 대상범위를 확대했으며 전동력응용기계기구류는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전선류는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1종전기용품은 258개품목, 2종전기용품은 87개품목으로 조정됐다.

공진청은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거나 범위가 확대되어 새로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업체는 내년 3월 17일 이전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한편 공진청은 10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등 주요 7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전기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購買입찰 자격제한 - 제조실적 없거나 財務부실업체 배제 -

정부물품 구매입찰에서 제조실적이 없거나 재무상태가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물품구매 입찰에도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입찰참가 자격 강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물품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서 입찰참가등록시 업체의 재무상태를 확인, 재무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등록단계에서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입찰참가 등록시 제조시설리스트, 특허 및 인허가사항, 제조실적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이 자료를 기초로 시설적정여부를 판단하되 부실우려가 있는 경우는 현지점검을 통해 등록을 제한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현재 시설공사입찰에만 적용되고 있는 입찰자격사전심사제를 물품구매에서도 실시하기로 했다.

입찰자격사전심사제는 우선 선박 엘리베이터 주차타워등 공중이용시설및 국민위생과 관련되는 물자구매에서 실시하며 품목별자격심사기준을 제정, 구매건별로 입찰참가 희망업체를 심사한후 적격자만 입찰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조달청은 제조실적이 없거나 재무상태가 부실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9월 28일부터, 물품구매 입찰자격사전심사제는 내년부터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